

공

고

●문화재청공고 제2022-16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1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5. 3.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 총 1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1963.1.21.)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불상 1구 복장유물 13건 18점	① 불상 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사 ② 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사 (불교중앙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10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신구법천문도 병풍 (新舊法天文圖 屏風)	1건 8폭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2	정조어필 한글편지첩 (正祖御筆 한글簡札帖)	1첩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3	경국대전 권1~2 (經國大典 卷一~二)	1책	김** (삼성출판박물관)
4	경국대전 권1~3 (經國大典 卷一~三)	2책	국 유 (국립중앙도서관)
5	경국대전 권4~6 (經國大典 卷四~六)	2책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6	안중근의사 유묵 - 인무원려필유근우 (安重根義士 遺墨 - 人無遠慮必有近憂)	1폭	김**
7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 (安重根義士 遺墨 - 日通淸話公)	1폭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8	안중근의사 유묵 -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 (安重根義士 遺墨 - 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	1폭	국 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9	안중근의사 유묵 - 지사인인살신성인 (安重根義士 遺墨 - 志士仁人 殺身成仁)	1폭	(사)안중근의사숭모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	안중근의사 유묵 - 세심대 (安重根義士 遺墨 - 洗心臺)	1점	장**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 : 총 1건

지정사항 (지정일자)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 유
보물 (1963.1.21.)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불상 1구	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사	국보 지정예고에 따 른 보물 해제 예고

라.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예고】

□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현재 지정사항 : 보물(1963.1.21. 지정)
- 명 칭 :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사
 -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241, 장곡사
 - ② 복장유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13건 18점
- 규 격 : 높이 91.0cm, 무릎폭 61.4cm
- 재 질 : 불상: 금동, 복장유물 : 종이, 견
- 형 식 : 통견(通肩) 착의에 오른손은 설법인(說法印), 왼손은 약기인(藥器印)을 결한 좌상
- 조성연대 : 1346년(충목왕 2)
- 사 유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 발원문을 포함한 복장유물이 추가로 연구됨에 따라 제작시기와 발원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발원문에는 1346년(고려 충목왕 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있어, 고려 후기 불상 연구의 절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려 후기 불상조각 중 가장 정확하게 약기인(藥器印)을 취하고 있는 약사여래의 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이목구비, 신체와 불신의 표현 등에서 14세기 불상의 전형 양식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조기술법에 있어서도 내외부의 주조결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 주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고려 후기에 제작된 불상은 대부분 아미타 정토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불상 역시 이러한 신앙적 배경과 더불어 고려 후기 유일의 금동약사여래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따라서 이 불상을 통해 당시 아미타정토 신앙뿐만 아니라 약사 신앙의 흔적을 분명하게 알려 준다는 점에서 신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곡사 불상의 지정가치를 검토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불상이 보여주는

조형적·도상적 중요성 뿐 아니라 복장발원문에 기재된 풍부한 시주자 명단을 들 수 있다. 장곡사 불상 복장에는 약 1,116명에 달하는 발원자의 정보를 담고 있다. 1천명이 넘는 발원자의 등장은 고려 후기 발원문 중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이들 시주자 인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헌 자료가 절대 부족한 고려사 복원에 중요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성불원문을 지은 백운(白雲)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불설지심체요절』을 편찬한 백운경한(白雲景閑, 1298~1374)과 동일인물로 추정되고, 그는 고려 후기 나옹 혜근(懶翁慧勲, 1320~1376),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와 함께 고려 말 ‘삼사(三師)’로 추앙받았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기록이 부족하여 그의 행적과 불교사적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 성불원문의 확인으로 공민왕 이전의 그의 구체적인 신앙 활동을 엿볼 수 있어 그의 불교사적 연구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장곡사 불상의 제작을 주도한 계층은 하급무관과 군부인들로 보이며, 이들은 몽고 침탈기 대표적인 불사(佛事) 주도층이었다. 아마도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전쟁에 직접 참전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불사를 통해 자신과 가족의 무병장수와 전쟁 중에 죽은 친족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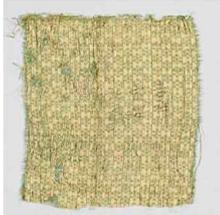
인명 중에는 공민왕의 몽고식 이름인 바얀테무르(伯顏帖木兒)를 비롯해 금타이지(金朶兒只), 도르지(都兒赤)처럼 몽고식 이름이 눈에 띄는데, 당시 고려 사회에 스며든 몽고 풍속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찾을 수 없는 14세기 중엽 경의 시대상을 꾸밈없이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은 미술사 뿐 아니라 불교사,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고려 14세기 중반의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발원문 및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가 기록된 목서가 있는 직물편, 그리고 공예적 수준이 뛰어난 향낭(香囊)과 함께 국보로 지정하기에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지정대상 복장유물 목록>

연번	명칭	이미지	크기/cm	수량	비고
1	成佛願文		47.8×1,058	1	親傳使 白雲 撰
2	謹封紙		30.6×8.0	1	앞면 至正六年丙戌七月初八日誌」 緣化道人 忍謙」 同願沙門 印音」 幹善道人 뒷면 南瞻部州大功德主洛浪君夫人崔氏 謹封

연번	명칭	이미지	크기/cm	수량	비고
3	은합 포장 직물		55×39.5	1	미색견 藥師同願」金珍伊」月乙[人尤]」金連」 崔允」石鷹伊」小斤呂吏伊」南自者乃 伊」石龍池松」奴介」亥尹」小斤」金 緣」覺明」惠柱
			38×59	1	-玉色龜甲飛雲紋紗
			62×53.5	1	-紅色絹
			52.5×49	1	-米色絹
			51×47	1	-鴉青色絹
			59.5×49,5	1	-淡紅色卍字龍紋紗
4	靑色絹 願文		40.2×19.0	1	內隱令女長命之願
5	素色絹 願文		7.3×18	1	延奈」三月」四月」正月」毛叱犬」康 夫」凡金」難金」阻金」能伊」万壯」 德奈」清珍

연번	명칭	이미지	크기/cm	수량	비고
6	綠色雲鳥紋紗 願文		15.7×11.7	1	吾願無病長命」高加方
7	綠色卍字龍紋綾 願文		22.7×13.3	1	同願」全州郡夫丘氏
8	靑色蓮花鳥紋綾 願文		76×6.5	1	師前洪儀守身記付盧就與他女盧(兌ム)夫 介加伊福莊」道人釋珠
9	綠色草花紋綾 願文		11×12.3	1	定安」吉祥」無盡
10	綠色小花紋織金 綾 願文		21×18.8	1	吉祥」定安」無盡
11	素色苧布 願文		15.9×13	1	同生安養願」金良」安天吉」安翊忠」 至正六年丙戌六月十六日烈明
12	香囊		9.8×10	1	
13	노리개		19.2×4.7	1	
합계			13건 18점		

【보물 지정예고】

□ 신구법천문도 병풍(新舊法天文圖 屏風)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신구법천문도 병풍(新舊法天文圖 屏風)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죽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 수 량 : 1건 8폭
- 규 격 : 각 폭 170.3×55.7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총 8폭으로 이루어진 병풍
- 조성연대 : 19세기 후반
- 사 유

‘신구법천문도 병풍’은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그려진 천문도(구법천문도)와 서양에서부터 도입된 새로운 천문도(신법천문도)를 좌우로 배치하여 구성한 것으로, 비단에 채색 필사한 8폭의 병풍으로 제작된 천문도이다.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1·2·3폭은 조선의 대표적인 천문도라 할 수 있는 ‘천상열차분야도(天象列次分野圖)’를 그렸고, 4·5·6·7폭에는 서양의 천문 인식이 담겨져 있는 ‘황도남북양총성도(皇道南北兩總星圖)’를 그려 놓았으며, 8폭에 일월오성도(日月五星圖)를 배치하였다. 지도의 명칭을 이러한 구성을 반영하여 ‘신구법천문도’라고 하였다. ‘신구법천문도’의 제작 시기는 안료 분석 결과로 본다면, 19세기에 서양에서 유입된 합성 안료인 짙은 녹색의 양록(洋綠, 에메랄드 그린)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이 병풍이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구법천문도’는 동양의 전통천문도와 1740년 중국을 통해 전해진 서양의 신법천문도가 함께 그려진 것으로 동서양의 천문 지식이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특히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모사한 별자리 그림을 통해 당시 천문도를 모사하기 위해 활용된 천문학, 기하학, 수학 등의 과학기술사적 특징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이다. 아울러 서양식 천문도의 조선 전래 이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의 짧은 시기 동안 서양의 천문 지식에 전통 천문학이 어떻게 융합되어 나타나는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비단 바탕에 정교한 필치로 다채로운 채색과 금니(金泥)를 사용한 대형 병풍으로서 유물로서의 품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정조어필 한글편지첩(正祖御筆 한글簡札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조어필 한글편지첩(正祖御筆 한글簡札帖)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량 : 1첩(16점)
- 규격 : 44.5×31.5cm
- 재질 : 종이에 묵서
- 형식 : 帖
- 판종 : 필사본
- 조성연대 : 1759년 이전~1798년
- 사유

‘정조어필 한글편지첩’은 정조(正祖, 1752~1800)가 원손시절부터 세손시절(1759년), 재위시절(1776~1800)까지 국동 외숙모 여흥민씨에게 한글로 쓴 편지 14통과 대자(大字) 글씨 2점을 모은 서첩이다. 원손 시절에 쓴 편지, 예찰(睿札, 왕세손 시절 쓴 편지) 4통과 어찰(御札, 보위에 오른 후 쓴 편지) 6통에 이르는 글씨 등 시기를 달리해 50여년에 이르는 정조의 한글서체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궁중여인들의 글씨와 좋은 비교가 된다. 편지전체적인 내용은 주로 계절인사와 외숙모의 안부와 건강을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주로 조선정치사 측면에서 평가되어 온 정조에 대해 외가와 관련된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조어필 한글편지첩’은 정조라는 단일 국왕의 일생을 복원할 수 있는 편지를 모았다는 점, 왕이 직접 쓴 어필 한글 자료로서 글씨의 흔적과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자료라는 점, 그리고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장첩(粧帖)의 형태가 지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조선왕실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경국대전 권1~2(經國大典 卷一~二)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칭 : 경국대전 권1~2(經國大典 卷一~二)
- 소유자(관리자) : 김**(삼성출판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2-2, 삼성출판박물관
- 수량 : 1책
- 규격 : 34×22 cm(반곽 25.5×17.2 cm)
- 재질 : 저지(楮紙)
- 판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71년(성종 2)
- 사유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의 통치체제의 대강을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전이다. 1455년(세조 즉위) 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등에게 편찬할 것을 명하자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 소위 “을사대전(乙巳大典)”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완성 이후 조선말까지 조선의 가장 기본이 법전으로서 조문의 수정 없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법제사·제도사의 연구에 있어 핵심이 되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며,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1485년(성종 16)년 간행의 초주갑인자 인본과 함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도 회귀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은 “을사대전”보다 앞선 “신묘대전(辛卯大典)”으로서 이 책은 1470년(성종 1) 11월에 인반(印頒)하고 1471년 신묘년(성종 2) 정월부터 준행한 것으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印出)한 권1~2의 「이전(吏典)」과 「호전(戶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현존하는 경국대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으나, 권1~2에 해당하는 현전본이 없다는 점에서 희소한 가치가 있고 사료적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이미 보물로 지정된 같은 신묘대전인 ‘경국대전 권3’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높다.

이렇듯 “신묘대전”의 또 다른 실체가 확인됨으로써 조선 법전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서 향후 관련 연구에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비록 완질본은 아니지만 조선의 법제사와 금속활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우 귀중한 문헌인 만큼,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경국대전 권1~3(經國大典 卷一~三)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국대전 권1~3(經國大典 卷一~三)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도서관)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 수 량 : 2책
- 규 격 : 306 × 208 cm(반곽 25.0 × 17.5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본혼입보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16세기(中宗~明宗 연간)
- 사 유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의 통치체제의 대강을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전이다. 1455년(세조 즉위) 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등에게 편찬할 것을 명하자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 소위 “을사대전(乙巳大典)”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완성 이후 조선말까지 조선의 가장 기본이 된 법전으로서 조문의 수정 없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법제사·제도사의 연구에 있어 핵심이 되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며,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1485년(성종 16)년 간행의 초주갑인자 인본과 함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도 회귀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청구번호 古朝33-26)의 판본은 16세기(중종~명종 연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이다. 권1~3의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에 해당하는 것

으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 권4~6과 더불어 내용상 완질을 이루는 자료이다. 을사대전의 인본으로 이보다 더 앞선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국대전(을사대전)의 권1~3은 해당 권으로 전하는 국내 유일본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책과 보물 ‘경국대전 권3’(신묘대전)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 경국대전 권4~6(經國大典 卷四~六)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국대전 권4~6(經國大典 卷四~六)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수원화성박물관)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수원화성박물관
- 수 량 : 2책
- 규 격 : 31.6×21.3 cm(반곽 25.5 × 17.1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본혼입보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16세기(中宗~明宗 연간)
- 사 유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의 통치체제의 대강을 규정한 최고의 성문법전이다. 1455년(세조 즉위) 최항(崔恒)·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 등에게 편찬할 것을 명하자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 소위 “을사대전(乙巳大典)”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은 완성 이후 조선말까지 조선의 가장 기본이 된 법전으로서 조문의 수정 없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법제사·제도사의 연구에 있어 핵심이 되는 매우 귀중한 문헌이며, 서지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1485년(성종 16)년 간행의 초주갑인자 인본과 함께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도 희귀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청구번호 구입1302)은 16세기(中宗~明宗 연간)에 간행한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이다. “을사대전”의 3권 2책으로 권4의 「兵典」, 권5의 「刑典」과 「奴婢決訟定限」, 권6의 「工典」에 해당한다.

“을사대전”의 인본으로 이보다 더 앞선 사례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희소적인 가치가 크다. 경국대전(을사대전)의 권4~6에 해당하는 국내 유일본으로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을 다진 법전으로서 역사적 상징적이 크다. 또한 이미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책과 보물 ‘경국대전 권3’(신묘대전)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 안중근의사 유묵 - 인무원려필유근우(安重根義士 遺墨 - 人無遠慮必有近憂)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중근의사 유묵 - 인무원려필유근우(安重根義士 遺墨 - 人無遠慮必有近憂)
- 소유자(관리자) : 김**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 수 량 : 1폭
- 규 격 : 149.0×38.5cm
- 재 질 : 종이에 묵서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910년 3월
- 사 유

‘안중근의사유묵 - 인무원려필유근우’는 안중근 의사(1879~1910)가 중국의 뤄순감옥(旅順監獄)에서 순국하기 전인 1910년 3월에 쓴 글씨이다. 형태는 세로가 긴 축장(軸裝)으로, 글씨는 중앙에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여덟 글자를 1행의 해행서(楷行書, 해서와 행서가 섞인 글자)로 썼고, 왼쪽에 작은 글씨로 1행에 “경술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이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방서(傍書)한 다음 아래에는 손바닥 도장인 장인(掌印)을 찍었다. 손바닥 도장은 1909년 3월 2일 노브키에프스크에서 함께 의병활동을 하던 12명이 모여 단지회(斷指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할 때 왼손 약지 끝의 한 마디를 자른 흔적이 보인다. 본문과 방서(傍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人無遠慮 必有近憂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경술년(1910) 3월 여순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쓰다.

이 글은 『논어(論語)』의 「위령공(衛靈公)」편에 출처를 둔 문구로서, 방서의 내용을 통해 안중근이 순국한 3월에 썼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안중근씨의 절필(安重根氏の絶筆)’이라는 신문기사에서 “처형 3일 전에 가미무라[上村重傳]가 옥중의 안중근을 방문해 이 세상과 하직하기 전에 마지막 필적을 의뢰하여 삼엄한 경관의 눈을 피해 어렵게 손에 넣은 귀중한 자료라 전한다.”(동화신문, 1959년 11월 16일)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1910년 3월 23일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안중근의사유묵 - 인무원려필유근우’는 독립운동가로서 안중근의사의 행적을 상징하는 유묵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미 지정된 작품과 비교하여도 작품의 수준에 있어 전혀 손색이 없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전래경위가 분명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安重根義士 遺墨 - 日通淸話公)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安重根義士 遺墨 - 日通淸話公)
- 소유자(관리자) : 이**(한국학중앙연구원)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57.8×106.9cm(액자), 화면 41.0×74.3cm
- 재 질 : 비단에 수묵
- 형 식 : 액자
- 조성연대 : 1910년 3월
- 사 유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은 안중근의사(1879~1910)가 중국의 뤼순감옥(旅順監獄)에 투옥 중이던 1910년 3월에 쓴 글씨이다. 세로 41.0cm, 가로 74.3cm의 장방형 형태의 유묵으로, 흰 비단에 먹으로 썼다. 글씨는 상관(上款)·본문·하관(下款) 세 부분으로 나누어 썼다. 본문 오른쪽 상관(上款)에 ‘증청전선생(贈淸田先生)’이란 다섯 글자를 1행으로 쓰고 간수과장(看守課長)이었던 기요타[淸田]에게 써준 것임을 밝혔다. 본문은 ‘일통청화공(日通淸話公)’의 다섯 글자를 3행에 1~2행은 두 글자, 3행은 한 글자를 썼다. 본문 왼쪽 하관(下款)의 방서(傍書)는 “경술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삼가 절하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謹拜)”를 2행에 쓴 다음 아래에는 손바닥 도장인 장인(掌印)을 찍었다. 글씨를 쓴 상관(上款)·본문·하관(下款)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贈淸田先生

기요타[淸田] 선생에게 선사하다.

日通淸話公

날마다 고상하고 청아한 말을 소통하던 분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謹拜

경술년(1910) 3월 여순 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삼가 절하다.

안중근은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때까지 약 40일간 일본인에게 많은 작품을 써주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내용 역시 중복된 것이 거의 없다. 대부분 동양고전을 바탕으로 삼은 교훈적인 내용과 동양의 평화를 방해하는 현실 고발이나 경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유묵의 내용은 일본인을 포용해 서로의 소통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인애(仁愛) 정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즉 ‘日通淸話公’은 그의 ‘동양평화론’에 입각한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은 안중근의사의 인의(仁義) 정신을 담은 유묵이란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제작 시기와 경위가 분명하다는 사유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

가 있다.

□ 안중근의사 유묵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安重根義士 遺墨 - 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중근의사 유묵-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安重根義士 遺墨 - 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
- 소유자(관리자) : 국유(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202.5×46.5cm, 화면 145.8×35.2cm
- 재 질 : 종이에 묵서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910년 3월
- 사 유

‘안중근의사 유묵 - 황금백만냥불여일교자’는 안중근의사(1879~1910)가 중국의 뤼순감옥(旅順監獄)에 투옥 중이던 1910년 3월에 쓴 글씨이다. 글씨는 중앙에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라는 열 글자를 1행에 해행서(楷行書, 해서와 행서를 섞어 쓴 글씨)로 썼고, 왼쪽에 작은 글씨로 1행에 ‘경술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방서(傍書)한 다음 아래에는 손바닥 도장인 장인(掌印)을 찍었다. 이 유묵은 안중근이 1910년 3월에 여순감옥 경수계장(驚守係長) 나카무라[中村]에게 써준 것으로, 본문과 방서(傍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黃金百萬兩 不如一教子

황금 백만 냥은 하나의 아들을 가르침만 못하다.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경술년(1910) 3월 여순 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쓰다.

이 글은 『명심보감(明心寶鑑)』에 “황금이 가득한 바구니는 아들에게 하나의 경서를 가르침만 못하고, 아들에게 천금을 줬을 아들에게 하나의 기예를 가르침만 못하다(“黃金滿籩, 不如教子一經, 賜子千金, 不如教子一藝).”라고 한 문구에서 유래한 것이다. 안중근은 1905년 12월 상해에서 프랑스인 신부 르각(Charles Joseph Le Gac, 한국명 곽원량郭元良, 1876~1914)을 만나 “자네는 빨리 귀국하여 자네 일에 힘쓰게. 첫째는 교육을 발달시키는 것이네. 둘째는 사회를 확장하는 것이네. 셋째는 민심을 단합하는 것이네. 넷째는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네.”라는 당부의 말을 들을 다음 귀국하여 다음 해에 삼흥학교(三興學校)와 돈의학교(敦義學校)를 설립하고 영민하고 준수한 청년을 교육하는데 힘썼다. 따라서 이 유묵의 구절은 르각 신부의 말을 듣고 교육과 계몽에 힘써 실력을 양성시키려한 교육가로서 그의 철학을 실천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안중근의사 유묵 -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는 안중근의사의 교육철학을 실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묵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수취인과 전래 경위가 분명하다는 사유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안중근의사 유묵 - 지사인인살신성인(安重根義士遺墨 - 志士仁人殺身成仁)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중근의사 유묵 - 지사인인살신성인(安重根義士遺墨 - 志士仁人殺身成仁)
- 소유자(관리자) : (사)안중근의사숭모회(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200.5×49.3cm, 화면 149.2×37.8cm
- 재 질 : 종이에 수묵
- 형 식 : 족자
- 조성연대 : 1910년 3월
- 사 유

‘안중근의사 유묵 - 지사인인살신성인’은 안중근의사(1879~1910)가 중국의 뤄순감옥(旅順監獄)에 투옥 중이던 1910년 3월에 쓴 글씨이다. 글씨는 중앙에 ‘지사인인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이라는 여덟 글자를 1행의 해서에 가까운 서체로 썼고, 왼쪽에 작은 글씨로 1행의 ‘경술년(1910) 3월 여순 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방서(傍書)한 다음 아래에는 손바닥 도장인 장인(掌印)을 찍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글씨는 안중근 공판을 지켜봤던 일본인 기자 고마쓰 모토코[小松元吾]에게 써준 것으로, 그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한 작품이다. 본문과 방서(傍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志士仁人 殺身成仁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이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경술년(1910) 3월 여순 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쓰다.

이 글의 출처는 『논어』의 「위령공」 편에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이는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룸이 있다(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글씨는 번짐이 많은 종이에 중봉세(中鋒勢)를 유지하며 단단하고 묵직한 필획으로 썼으며, 획의 끝처리를 날카롭고 호탕하게 처리하였다. 자신만의 서풍으로 자연스러운 해·행서의 기

운을 담아 쓴 것이 돋보인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안중근의사의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필획과 자형, 속도감 등 전반적 서풍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중근의사 유묵 - 지사인인살신성인’은 독립운동가로서 안중근의사의 행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자 개성적인 필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존 상태가 좋고 제작시기 등이 분명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안중근의사 유묵 - 세심대(安重根義士 遺墨 - 洗心臺)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안중근의사 유묵 - 세심대(安重根義士 遺墨 - 洗心臺)
- 소유자(관리자) : 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 량 : 1점
- 규 격 : 35.2×145.8cm(액자)
- 재 질 : 비단에 수묵
- 형 식 : 액자
- 조성연대 : 1910년 3월
- 사 유

‘안중근의사 유묵 - 세심대’는 안중근의사(1879~1910)가 중국의 뤄순감옥(旅順監獄)에 투옥 중이던 1910년 3월에 쓴 글씨이다. 중앙에 ‘세심대(洗心臺)’라는 3글자를 우종서(右縱書)로 썼고, 왼쪽에는 작은 글씨로 2행에 ‘경술삼월 여순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쓰다(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고 방서(傍書)한 다음 아래에는 손바닥 도장인 장인(掌印)을 찍었다. 글씨는 농묵(濃墨)으로 써서 자형(字形)이 선명하고 필획과 필치의 자취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洗心臺

마음을 씻는 대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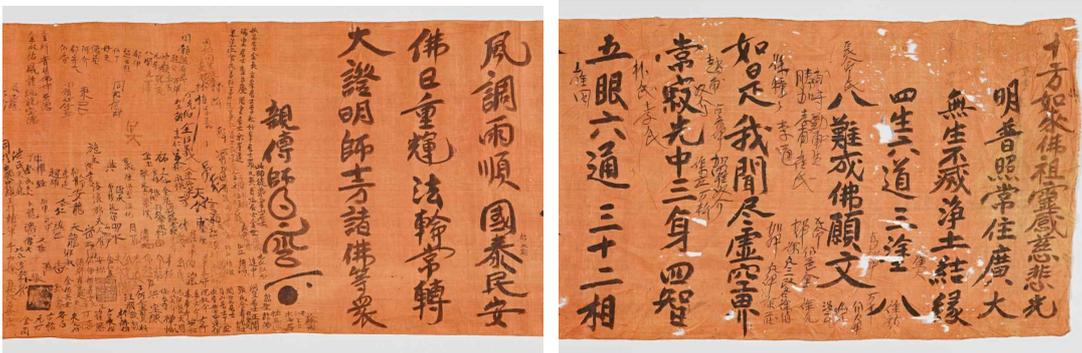
경술년(1910) 3월 여순 감옥에서

대한민국인 안중근 쓰다.

‘안중근의사 유묵 - 세심대’는 일제강점기 대표적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의사의 유묵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유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제작시기가 분명해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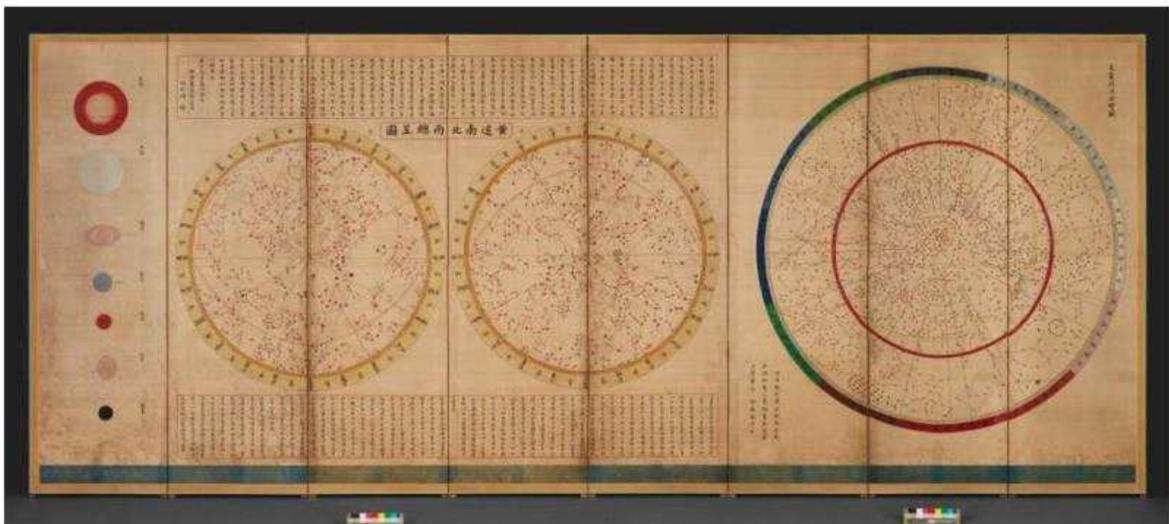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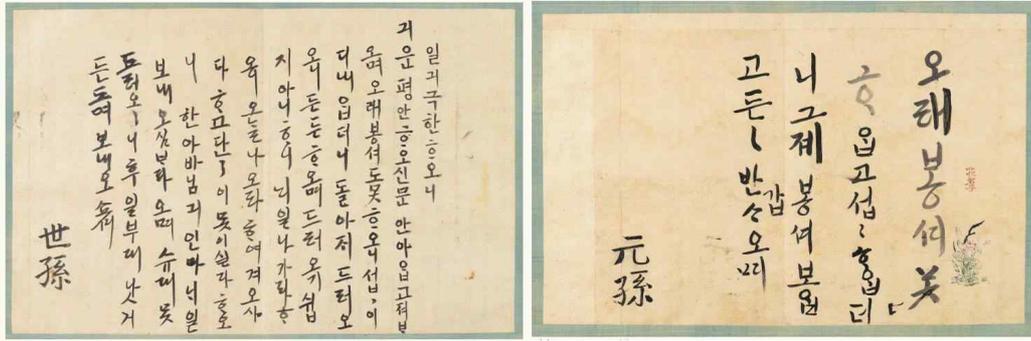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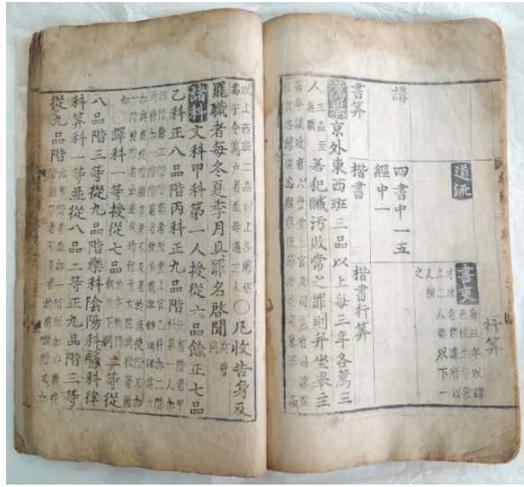
○ 보물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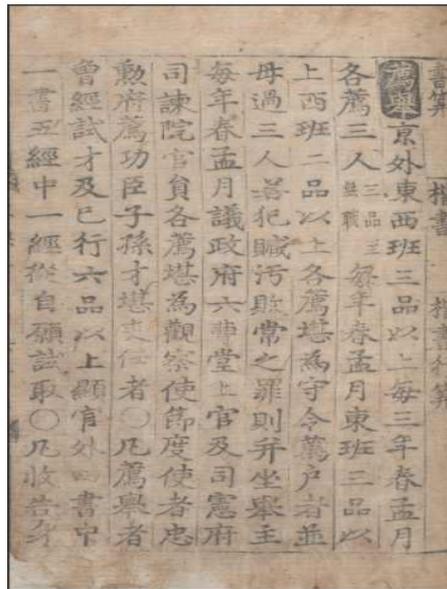
<신구법천문도 병풍>



<정조어필 한글편지첩>



<경국대전 권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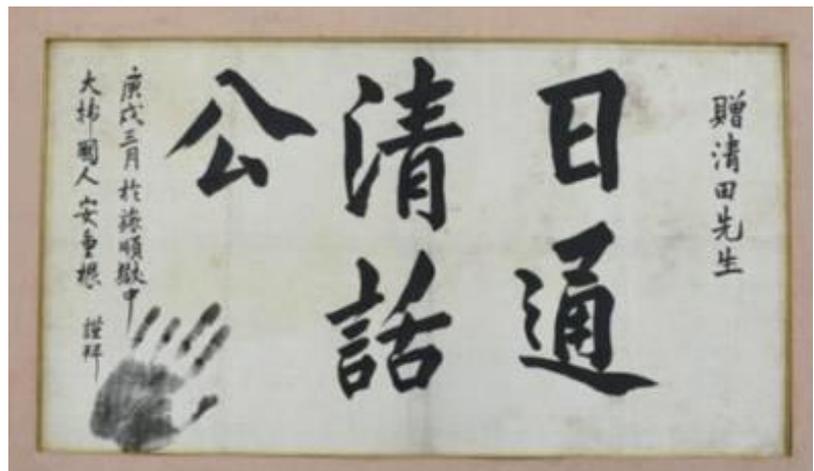
<경국대전 권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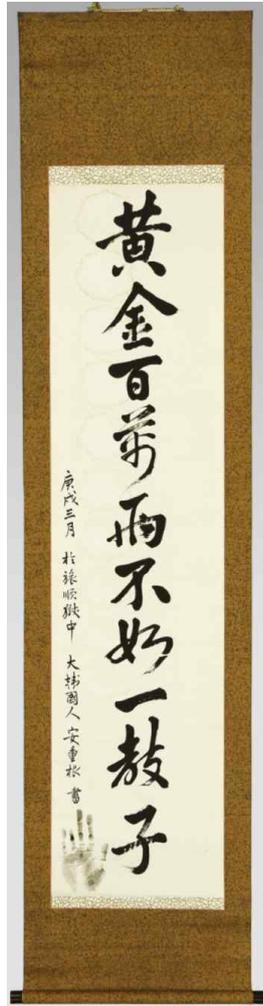
<경국대전 권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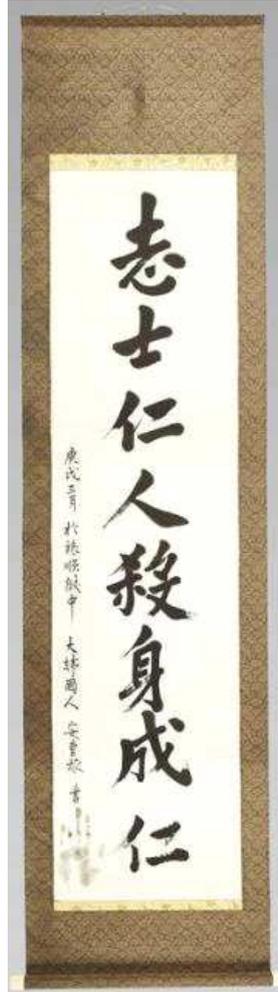
<안중근의사 유묵
인무원려필유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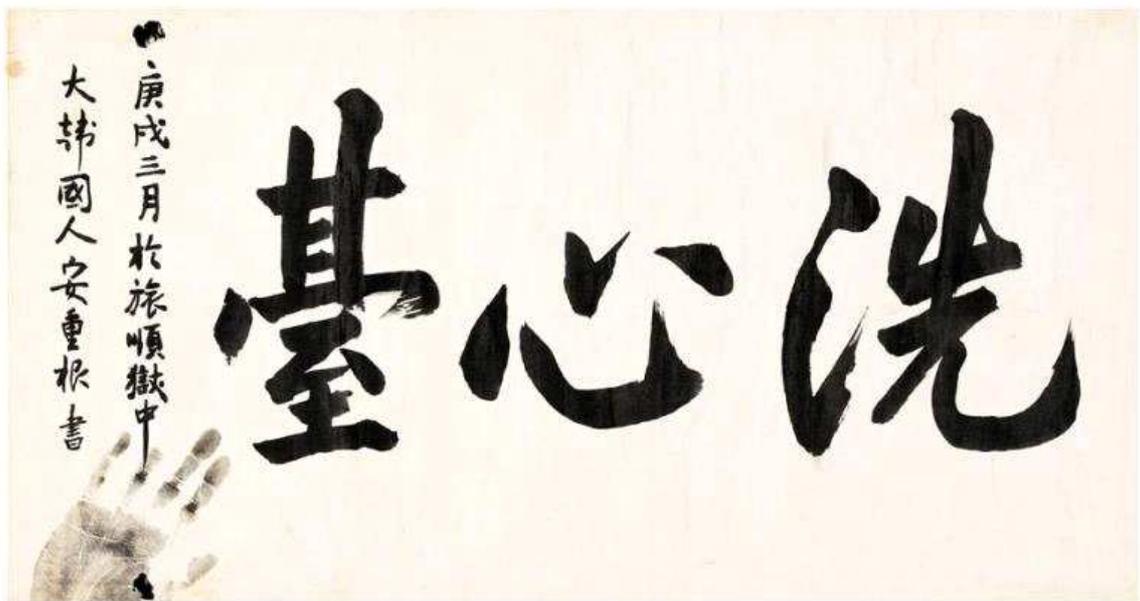
<안중근의사 유묵 - 일통청화공>



안중근의사 유묵 -
-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



안중근의사 유묵 -
- 지사인인살신성인



<안중근의사 유묵 - 세심대>